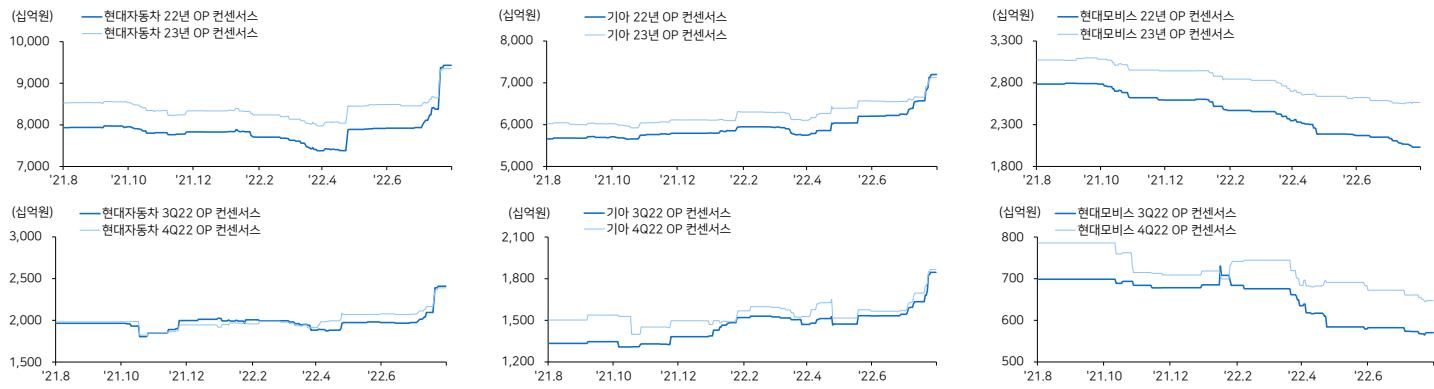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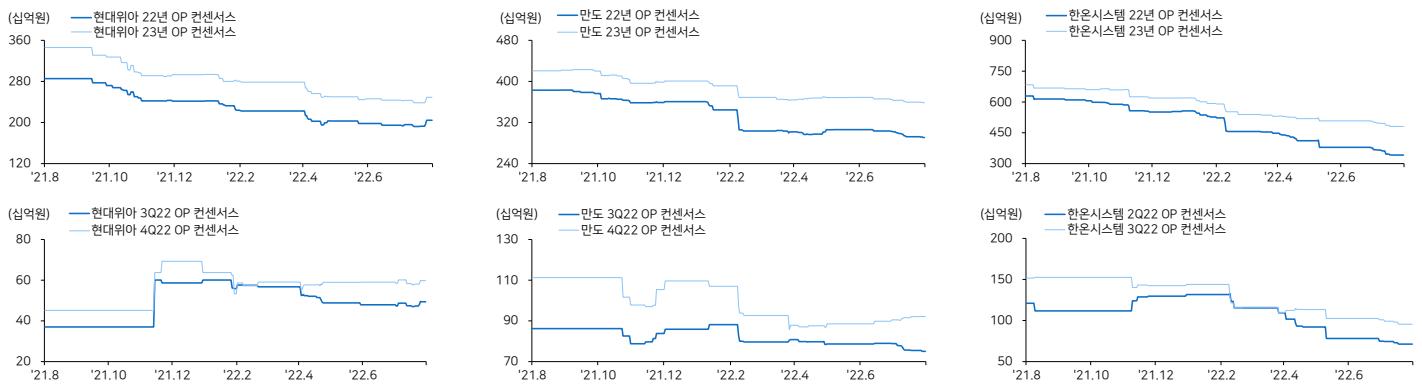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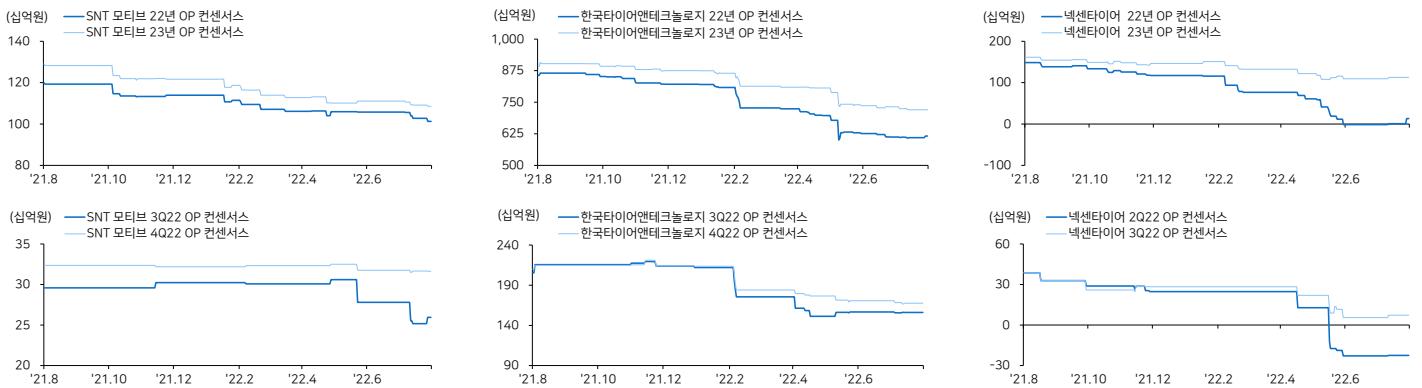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中 따끈美... '현대차-K배터리' 밀월 관계 균열 오나 (아시아타임즈)

미국이 해외 생산 전기차에 대한 장벽을 높이면서 국내 배터리 3사를 뜯는 K-배터리와 현대자동차그룹간 관계 변화가 예고됨. 미국 시장을 놓고 현대차그룹이 '을'의 처지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https://bit.ly/3BWHMc>

"전기차 배터리 가격 '당분간 안 떨어진다' 포드 CEO (파이낸셜뉴스)

포드 CEO는 향후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원자재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향후 EV 신차 가격 역시 오를 것으로 전망함. 포드는 전날 F-150 라이팅의 가격을 6,000~8,500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https://bit.ly/3vZ49dI>

Tesla self-driving smear campaign releases 'test' that fails to realize FSD never engaged (electrek)

The Dawn Project라는 캠페인은 Tesla 차량이 어린이 코끼리의 마네깅에 충돌하는 영상을 통해 Tesla의 자율주행 기능이 불완전함을 주장. 해당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됨. 그러나 해당 영상에서는 FSD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https://bit.ly/35L6G4z>

Hyundai selects BorgWarner's IDM to power new EV model (electrek)

현대자동차는 '24년 3분기 양산'을 목표로 새로운 소형 전기차(EV) 모델에 보그워너(BorgWarner)의 통합 구동 모듈(IDM)을 적용한다고 밝힘. IDM은 400kW에서 작동하며 최대 전력은 135kW.

<https://bit.ly/3paVS28>

"현대·기아차 흠풀기 너무 쉽다"…소비자 '결함' 주장 집단 소송 (중앙일보)

현대차와 기아차가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차량을 흠풀기 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함. 현대차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은 안전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한다'고 응답.

<https://bit.ly/3QuRrL6>

현대차·기아, 미 스타트업에서 전기차 3천100여대 수주 (연합뉴스)

현대차·기아가 미국의 전기차 구독서비스 스타트업으로부터 전기차 3천100여대, 약 1,864억원어치를 수주받음. 해당업체가 가장 물량을 많이 배정한 업체는 테슬라로, 약 8,300대를 수주함.

<https://bit.ly/3zNyuuW>

GM's CFO says the automaker is hitting an inflection point, scaling EV production (electrek)

GM CFO는 회사의 EV 생산규모 확장이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언급. GM은 전기차 생산 목표를 2025년까지 100만대에서 200만대로 두 배로 늘릴 계획이며, 허리/풀트/캐닐링 등 모든 가격대의 모델 시장을 공략한다는 선언.

<https://bit.ly/3sQT7H9>

Honda raises annual profit forecast after beating quarterly view (Reuters)

혼다는 엔화 약세로 인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8,100억엔에서 8,300억엔으로 상향했으나, 반도체 부족 현상의 지속으로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하자는 입장은 보임. 벡오더 물량 해소가 최우선 과제이며 인플레이션 영향을 모니터링 중.

<https://reut.rs/3Qwu5pb>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